

연길 거리 이름, 시대의 발전과 도시의 변천 보여줘

—도시의 역사문화전통 전승하고 지방 문화 발전시켜

중흥으로 교차된 거리는 한 도시의 발전 맥락을 이루고 있다. 거리 이름은 비록 간단하지만 도시의 문화적 함의가 깊이 반영되어있다. 일전, 연길시는 일부 거리와 골목길에 대해 명명, 개명, 확장하여 광범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시민들은 열선전화로 “태암(台岩)을 진달래로 개명한 것은 무슨 뜻인가?”, “비행로(飞行路)는 왜 이름이 바뀌었나?”, “새로 명명된 거리 이름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문의하기도 했다. 최근, 기자는 시민들의 의문을 가지고 연길시민정국 구획지명과를 찾았다.

● 거리 이름은 짧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지명과의 책상에 놓인 지명 관련 책자에는 연길시 각 거리(로)의 내력이 적혀있었다. 연길거리(烟集街)라는 세 글자(중국어)는 연길 명칭의 유래를 간결하고 생동하게 설명하고 국자거리(局子街)는 백년의 상전벽해를 거치면서 연길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 궤적을 지켜보았으며 애단로(爱丹路)라는 이름은 만주어로 ‘메돼지’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거리 이름은 지명의 문화적 특색뿐만 아니라 다민족 집거지로서의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매 거리마다 모두 시간의 목격자로서 연길시의 이야기와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시대의 끊임없는 진보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한 부분인 거리 이름도 상응한 갱신과 조정을 거치고 있다. 두 지역의 명칭 변경에 대해 이 부분의 책임자는 태암촌 소재지의 ‘태암’을 ‘진달래’로 개명한 것은 농촌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태암촌의 미래 발전에 착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비행로를 민병로(民兵路)로 이름을 바꾼 것은 지리적 위치의 특수성 때문이며 관련 부문은 향후 3년내에 기존의 민병호 빼스 로선과 결합하여 점차 하나의 민병 건설, 징병 선전, 국방 교육 등을 아우르는 테마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거리 이름의 변화는 문자 의미가 바뀌었을 뿐만 아



니라 앞으로도 이 거리가 새로운 발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리 이름이 바뀌는 시대적 의의이다.

● ‘봉황’이 돌아와 역사문화를 계승하다

그러나 역사적 기억을 전승하기 위해 옛 거리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새것과 옛것이 병존하는 거리 이름 체계는 도시의 발전 맥락을 보여주면서도 독특한 문화의 흔적을 보존한다.

‘봉소거리’(凤巢街)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관련 책임자는 사실상 새로 명명된 대부분 거리와 골목의 명칭은 모두 공모와 선정을 거쳐 일련의 이름을 확정지은 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문건에 포함시키고 실제 수요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봉소거리’는 2022년에 한 시민의 제안에서 따온 특이한 이름이다. 이 시민은 이 거리가 있던 곳이 ‘봉소평’(凤巢坪)으로 불렀다며 이 이름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유서깊은 지명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북쪽으로는 와룡산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부르하통하를 마주하고 있어 상서로움을 의미하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리의 이름이 그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여 지어지기를 원했다.

시민의 반응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재빨리 문헌을 뒤져 ‘봉소평’에 관한 기록을 찾아냈다. 이 지역은 소영진 민주촌 관할로 소영진정부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6.8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형적 특성이 대형 새들이 둥지를 트는 곳과 흡사해 ‘봉소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마을은 1930년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1934년에 연길현 남양향에 귀속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봉소동’이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역사는 94년이 넘는다. 연길시 역사문화전통에 대한 존중과 전승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거리를 ‘봉소거리’로 명명하기로 결정했으며 인근 거리인 ‘와룡거리’(卧龙街)와 서로 호응하게 되었다. 또한 ‘봉’(凤)의 문화적인 요소를 계승하기 위해 봉소거리 서쪽의 한 거리를 ‘봉림거리’(凤林街)라고 명명했다.

● 마을 도로도 명명되어 방향감이 좋아졌다

농촌 관광이 발전함에 따라 농촌 거리(로)에 대한 명명도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2024년부터 거리 명명 사업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거리(로)도 이름을 달고 등록하게 되었다. 지난해 연길시민정국은 ‘농촌저

명행동’(乡村著名行动)을 시작했다. 이 행동의 일부분으로 연길시민정국은 전 시 56개 행정촌중에서 관광객이 풍부하고 기초시설이 비교적 완벽한 팔도촌과 태흥촌을 시범촌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촌의 총 34갈래의 농촌도로에 규범화된 이름을 붙였고 64개의 표준화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더는 방향에 얽매지 않고 표지판을 따라서 상응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연길시민정국 구획지명과 책임자는 농촌도로 명명은 자주 신청, 전문가 지도, 자원봉사자와 지명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방식을 채택하였는 바 각 촌의 특징, 특색과 새시대의 주선물을 결합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것과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문화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농촌 지명을 명명했다고 밝혔다.

레를 들면 태흥촌의 휴수로(携手路), 공진거리(共进街)는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한마음이 되는 감정을 의미하며 상호 부족, 공동 진보, 공동 발전의 정신을 구현한다. 팔도촌의 항련로(抗联路)는 항일전쟁 기간 일본군이 도로 북쪽에 경찰서를 설치했었고 항일 유격대가 이곳에서 전투를 펼쳤기 때문이고 팔도촌의 양진로(秧田路)는 촌민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담고 있다.

또한 일부 도로의 명명은 예전에 사용됐던 동네 이름을 교묘하게 채택하여 이 도로에 독특한 역사와 문화 의의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 잊혀져가는 옛 지명이 새시대 배경에서 활기를 띠게 하여 지방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민정국은 2025년에 ‘향촌저명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향촌저명행동’의 중요한 의의를 적극 선전하는 동시에 몇차례로 나누어 연길시 각 행정촌의 농촌도로에 대해 명명하여 년 내에 농촌 지명에 대한 전면적인 명명을 완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 연변조간뉴스



〈교육강국 건설계획 요약(2024년—2035년)〉 중소학교 관련 중대 포치

최근 중공중앙, 국무원은 〈교육강국 건설계획 요약(2024년—2035년)〉을 인쇄발부하여 2035년까지 교육강국 건설을 목표로 교육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포치를 했다. 그중 중소학교와 관련된 요점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 일련의 ‘대사상정지수업’ 브랜드를 만든다.
-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리념을 실천하고 학생들에 대한 체질 강화 계획을 시행하며 중소학교 학생들의 하루 종합 체육활동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하고 학교 축구 건설을 강화하며 근시률과 비만률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 심리건강교육을 보급하고 전국 학생 심리건강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학년별로 쉼비스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 새시대의 위대한 실천을 깊이 있게 총결하고 ‘중국 시리즈’ 독창적 교재를 내놓아 자주적인 교재 체계를 구축한다.
- 무료교육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시, 현 결합’의 기초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각 학년의 교육자원을 활용하며 학

년을 넘나드는 동적 조정과 잉여 및 부족 조정을 강화하고 학령 인구의 도시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한다.

■ 인구 20만명 이상의 현(시, 구, 기)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학교를 잘 설립하도록 지지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 15년 일관제 특수교육학교를 건설하도록 격려한다.

■ 기숙제 학교의 운영 조건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농촌 소규모 학교를 잘 운영한다.

■ 자격을 갖춘 유치원이 2~3세 유아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시내지역 고중단계의 다양한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일반 고중 교육자원 공급을 신속히 확대한다.

■ 일련의 과학교육을 특색으로 하는 일반고중 설립을 모색하고 종합고중을 잘 운영한다.

■ 교의 양성 관리 성과를 공고히 하고 학과류 양성을 엄격히 통제하며 비학과류 양성을 규범화한다.

■ 학교교육의 주요 진지 역할을 강화하고 교실수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 중복성 숙제를 줄이고 일상 시험 및 테스트 빈도를 줄인다.

/ 인민넷 - 조문판

CCTV 무형문화유산야회에 등장한 연변의 정채로운 종목



2월 1일 저녁, 중앙텔레비죤방송 종합채널(CCTV-1)은 〈2025년 무형문화유산야회〉를 방송했다. 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최미선, 연변주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최경송, 안무 김해금과 연변대학 사생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조연, 귀빈과 함께 정채로운 종목 〈서설영춘(瑞雪迎春)〉을 선보였다. 공연을 통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인 가야금 예술, 조선족 통소음악과 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인 최미선, 연변주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최경송, 안무 김해금과 연변대학 사생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조연, 귀빈과 함께 정채로운 종목 〈서설영춘(瑞雪迎春)〉을 선보였다. 공연을 통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인 가야금 예술, 조선족 통소음악과 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인 최미선, 연변주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최경송, 안무 김해금과 연변대학 사생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조연, 귀빈과 함께 정채로운 종목 〈서설영춘(瑞雪迎春)〉을 선보였다.

/ 김파기자



독일에서 장장 29년... 전향선박사의 인생 특강



특강을 하고 있는 전향선박사

지난 2월 4일 오전, 독일에서 29년을 생활한 전향선박사의 인생 특강 ‘유럽을 주무대로 세상과 대화하다’가 통산문화회관, 조글로미디어, 연변단풍수필협회의 주최하에 연길에서 개최되었다.

1988년 대학입시에서 연변 1중 리과장원으로 북경대학 지구물리학부에 입학한 전향선은 1996년까지 북경대학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96년 9월에 독일 브란덴부르크공업대학 대기화학학부에서 〈비물과 구름의 류산(硫酸) 전환 비물과 그 작용〉이란 제목으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후 장장 29년간 독일에 정착해 살아오면서 지중해 연안을 구심점으로, 유럽과 전 지구촌을 무대로 좌충우돌 분투한 그의 인생이야기, 특히 독일어 한마디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일에 정착한 후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가 갑자기 병어리가 되어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그 처절했던 인생고비를 ‘악바리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이겨낸 이야기는 120여명 참가자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독일이 관문을 넘고 함부르크대학 남북극 관련 해빙원격감지라는 최첨단 연구에 한창 실적을 올리던 그 시기 연이어 태어난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희로애락이 뒤섞였던 이야기, 육아 7년이라는 공백기를 용하게 넘기고 다시 극동연구소에 취직하여 지

금까지 유럽우주국의 프로젝트 연구에 몰입, 그 분야의 권위적인 석학으로 우뚝 선 이야기는 청취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독일, 그 코대 높은 유럽인들 속에 155센티미터 작은 체구의 한 조선족 녀인이 끼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과시할 수 있는 립지를 굳힌다는 것은 웬만한 자력으로서의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향선박사는 자신이 그 피눈물나는 인생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인 어머니 김영금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생애 27권의 책을 펴낸 어머니는 두발로 중국 전역을 종횡무진하면서 산지사방에 숨겨져있는 조선족 과학자들을 찾아 9만리 원정을 끝내면서 《한

세대의 별들》을 비롯한 여러권의 책을 펴쳐냈다. 그 책 속의 많은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 롤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특강에 이어 전향선박사가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쓴 수필과 수기들로 엮은 도서 《브란덴부르크의 하늘 아래에서》(연변교육출판사) 출판기념식이 있었다. 독일에서의 쓰고 단 인생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모임에 참석한 당사자들한테도 관심사가 되어 화제를 모았지만 현재 해외에 나가 석·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곧 대학입시나 해외 류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김태국기자



질의문답 시간에 불려나와 연애태를 얘기하는 남편 마를

